

Shell, 최고경영자 2인 돌연 사임

석유 · 천연가스 재고 관련 과도한 언급 ... 후임에 van der Veer 임명

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의 석유기업 Royal Dutch/Shell Group의 Philip Watts 회장이 원유 및 천연가스 재고와 관련된 과도한 언급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격 사임했다.

이와 함께 Shell의 개발 · 생산담당책임자 Walter van de Vijver도 사임했다.



Jeroen van der Veer

Shell은 성명을 통해 두 경영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더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.

Shell은 Watts 회장의 후임으로 Royal Dutch의 Jeroen van der Veer 사장을 그룹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장에 선임했다고 발표했다.

두 경영자의 사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와 Shell의 감사위원회 및 외부위원회가 석유 및 천연가스 재고와 관련된 과도한 언급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루어졌다.

Shell은 2004년 1월 초 원유 및 천연가스 재고량을 20%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석유업계 분석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.

당시 발표로 Shell은 지주회사인 Royal Dutch Petroleum(헤이그)과 셸트랜스포트&트레이딩(런던)의 주가가 급락했다.

이에 따라 성난 주주들과 애널리스트들이 Royal Dutch/Shell에 충분한 해명과 함께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5>